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박 성 미<sup>†</sup>  
(동서대학교)

## Development of cultural approach counseling for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Sung-Mi PARK<sup>†</sup>  
Dongseo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ultural approach counseling for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The subjects were 40 adolescents who had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20) and a control group(20). Subjects completed a school adjustment and a style of life.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ANCOVA, ONEWAY of repeated measur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vealed that subjects of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style of life and school adjustment than ones of control group. Based upon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cultural approach counseling for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was effective in improving adjustment of school of adolescent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Culutral counseling, Adolescent*

### I. 서론

최근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기홍, 2003). 이에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개입을 위하여 주로 사용된 문제중심적 면담위주의 상담전략에 한계점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류경희, 2003; 변미희, 2002; Keum, Kim, Kang, & An, 2000). 문화인류학적 관점의 연구들(Maslowski, 2006; Sellman, 2002)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영향에 기인하고 있

는데, 곧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간의 갈등 때문에 야기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청소년문화가 학교문화와 병존하기 어려운 반문화적 경향을 보인다는 인식 때문으로(이건만, 1999; Draper, 2001; Hobby, 2004) 이 반문화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이 비롯된다고 본다(김민, 2000; 임상록, 2002; Clement, 2003; Dewit, 2000; Patterson, 2000).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학교문화에 대한 반항 혹은 거부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에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 수 없다.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320-1866, psm1994@dongseo.ac.kr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의 학업생활 부적응과 학교문화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임상록, 2002; 조용환, 2000)을 살펴보면, 오히려 학교문화가 입시위주 문화를 발달시킴으로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을 소외시키고, 가치와 판단의 혼란을 유발시켜 학업생활 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돌출시켰다고 본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가 청소년문화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학교문화의 역기능적 산물인 입시문화라는 것을 강조한다(박진규, 2000; 이상균, 2005).

그러므로 이런 문화적 영향을 간과한 채 문제 중심적 면담위주의 상담을 전개하였으므로 변변히 큰 실효를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준거문화로서 입시문화가 그 순기능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준거문화에 대한 반문화로 인식되어왔던 청소년문화에서 오히려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조용환, 2000; 정유성, 1999). 이는 청소년문화를 학교문화의 반문화로 보지 않고 대안문화로서 적극 수용하려는 관점으로 청소년문화의 순기능을 토대로 교육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정영애·김진화, 2001; 정준교, 2001; Bulach, 2001; Patterson, 2000).

더 나아가 일부 문화기술적 연구들(박성희, 1992; 최소영, 1999)에 의하면, 청소년의 삶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시문화와 반문화의 갈등적 공유 생활방식이 오히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삶의 양식으로서 양면가치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입시문화와 반문화가 서로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역할을 하는 양식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는 자발적 적응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은 학교라는 환경속에 준거문화와 같은 입시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입시문화의 일면을 공유하면서도 그들이 속해있는 청소년 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특질을 가지려 한다(조용환,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이는 입시문화,

대안문화, 양면가치문화 간에 정적 혹은 부정적 관련성 속에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혹은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위한 상담 체계는 기존의 문제중심적 면담위주의 상담으로 접근하기보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제 하위문화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90년대 초 청소년의 학업생활 부적응이 사회화되면서 상담연구 영역에서도 청소년의 학업생활 부적응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들(김혜은, 1996; 최소영, 1999; Okula, 1999)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업생활 부적응과 입시문화 및 대안문화 간에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이 하위문화들에 대한 표면적, 형식적인 설명에 치우침으로써 입시문화 및 대안문화를 에피소드화 또는 단편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박성희, 1992). 그로 인해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상담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학업생활 부적응이 환경-문화적 영향에 비롯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에게 환경-문화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교사, 상담자, 종교인, 법조인 등)을 조력자로 활용하는 다전문가 상담체계가 제안된 바 있다(Keum et al., 2000). 이는 청소년문제를 조력하기 위해 환경, 문화적으로 영향력있는 대상을 활용한다는 측면이지 실제로 청소년문제의 근원에 닿아있는 문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청소년의 제 하위문화들, 즉 입시문화, 대안문화,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을 토대로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Ⅱ.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 1.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구성

대다수의 청소년은 학교라는 조직에 소속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개념적 틀 속에서 다양한 하위문화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정준교, 2000; 조용환, 2000; Maslowski, 2006; Sellman, 2002). 여기에는 대학입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력지향의 입시문화, 학력지향에 대한 탈피 혹은 도피 욕구로 인해 나타나는 대안문화, 그리고 입시문화와 대안문화를 함께 공유하려는 양면가치문화 등이 있다. 이를테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의미있게 재해석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위 규범이든지 일탈행동이든지 간에 청소년의 일상생활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삶의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Littrell, 2001). 즉 이 하위문화들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공유하고 있어 그 역기능적 측면과 청소년문제와 관련성이 있으며 순기능적 측면은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박성미, 2007; Clement,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생활적응을 돕는 관계변인으로 입시문화, 대안문화,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을 토대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였다.

### 가. 입시문화

입시문화는 학교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방식으로 학업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학력지향, 학업생활과 학생다움의 수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김준기, 2000; 조용환, 2000; 정준교, 2001). 이는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학생다움'의 범주에서 공부 외의 다른 것은 유보해야 한다는 당위적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은 오랜 기간동안 이러한 규정에 의해 스스로 강제되어왔고, 이것이 내면화되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공부 이외의 것은 유보하는 생활습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시험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 암묵적 수업방법을 사용하는 교사가 능력있는 교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친구는 학창시절을 함께하는 동료이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자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입시문화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 혹은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준교, 2001; Arriaza, 2004). 이 경우 입시문화를 특징짓는 학교문화는 청소년의 성장에 준거문화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Clement, 2003; Hobby, 2004). 즉 학교문화가 바뀌면 청소년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향상을 가져온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시문화가 지닌 순기능 측면, 즉 성장과 발달 지향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주된 역할인 학업수행을 인지적 발달을 돕는 기능으로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습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하기,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해내기, 시험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를 극복하기 등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첫 번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나. 대안문화

청소년은 주변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에 자신의 존재를 시위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 청소년 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특질로서 대안문화를 형성한다고 본다(조용환, 2000; 정유성, 1999).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안문화는 청소년이 처한 전환기 혹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 혼란 및 동요를 또래집단에의 귀속의식을 통해 안정감을 회복하려는 보상적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안문화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하므로 반문화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은지용, 2002). 그러나 그동

안 대안문화는 학생으로서 당연시되는 생활 풍토에서 탈피하려는 청소년의 또 다른 측면으로 비학업생활과 '학생다움'의 이탈로 특징지을 수 있다(권이중, 1996; 곽금주·김의철·박영신, 1999; 최소영,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이는 입시문화와는 대립되는 삶의 양식으로 과거에는 입시문화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생활풍토이지만,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청소년의 삶에 깊숙이 내재하고 있다.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기존의 준거문화 자체를 바꾸어 나가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다(조용환, 2000; Littrell, 2001).

이에 일부 연구들(조용환, 2000; Sellman, 2002)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주된 삶의 양식인 대안문화 속에서 건전한 요소를 찾아 교육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을 반영하여 볼 때, 기존의 준거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문화의 순기능을 토대로 청소년이 즐기는 삶의 양식을 수용하면서 학습활동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집중하기, 재미있게 공부하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공부하기, 자신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학업태도 형성하기 등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두 번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다. 양면가치문화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청소년은 입시문화와 대안문화라는 갈등적 공유 생활방식을 통해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양면가치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양면가치문화는 입시문화를 청소년의 부정할 수 없는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것에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박진규, 2003; 장원규, 200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이는 학생으로서의 입시문화와 자유추구의 대안문화를 주된 내용으로 서로 대립되는 측면을 갈등적으로 공유하면서 청소년의 삶에 있어 보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삶의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리므로 학생문화와 상호교류하는 청소년문화는 반문화적 맥락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면가치문화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도중수, 2003; Littrell, 2001; Sellman, 2002).

이런 관점을 반영해 보면, 청소년들이 지각하기에 또한 청소년의 준거 대상이 되는 교사들이 지각하기에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즉 청소년과 교사가 합의한 문화를 교육적 내용으로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은지용, 2002; 정영애·김진화, 2001).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새로운 수업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황기우, 2002). 이러한 청소년과 교사가 합의한 문화 재창조에 근거하여 교사와 청소년간 상호존중, 교사와 청소년간 성숙한 대화, 학업청소년으로서 학습동기 부여, 또래와의 협력관계 속에 학습하기 등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세 번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로 입시문화, 대안문화,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을 각각 살펴보았다.

## 2.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실시절차

이상과 같이 구성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은 크게 준비단계(1~2회기), 실행단계(3~14회기), 종결단계(15회기) 등, 세 단계(전체 15회기)로 구성하였다.

#### 가. 준비단계(1~2회기)

준비단계에서는 먼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프로그램의 목적, 특징, 종료될때까지 규칙 등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학업생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하위문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삶의 양식'(박성미, 2007)척도로 개별적 특성을 확인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 개발

<표 1>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회기별 개요

구성 영역	회기	주제	세부 활동(매 회기별 100분)	전문가 평정			예비 시행		
				적합 M	현실 M	유용 M			
준비 단계	1	친밀감 형성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목적, 특징을 알려줌 -종료까지 지켜야 할 규칙 이해 및 친밀교감 형성	4.2	4.2	4.4	만족		
	2	삶의 양식 확인	-‘삶의 양식’을 확인함 -‘삶의 양식’ 중 역기능 및 순기능적 측면을 이해	4.2	4.2	4.2	만족		
실행 단계	입시문화	3	학습 시간관리	-시간을 잘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함 -시간사용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획득하도록 함	4.8	4.8	4.8	만족	
		4	학습 환경관리	-수업 관련 환경을 관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4.2	4.4	4.6	만족	
	순기능	5	학습내용 잘 기억하기	-중요한 개념이나 사실, 규칙 등의 정보를 습득하는 요령을 익힘 -기억된 정보를 회상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략제시	4.8	4.8	4.8	습득 용이	
		6	학업 스트레스 극복하기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업스트레스를 이해 -학업스트레스의 원인 파악 및 대처방법을 습득	4.4	4.6	4.4	만족	
	대안문화	7	주의 집중하기	-주의집중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시킴 -주의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킴	3.4	4.2	4.2	만족	
		8	재미있게 공부하기	-배운 지식 혹은 학습하는 내용을 조직화하는 인지 전략 제공 -배운 지식 혹은 학습하는 내용을 정교화하는 인지 전략 제공	4.6	4.6	4.6	습득 용이	
		9	미래를 생각하며 공부하기	-Holland 학습태도검사 실시 -Holland 학습태도검사에 의하여 학습유형에 따른 진로를 탐색	4.4	4.6	4.6	만족	
		10	미래를 위한 학업태도 형성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계획을 설정 -진로계획 성취를 위한 현재와 미래의 관련성을 탐색	4.2	4.4	4.6	만족	
	양가문화	11	교사와 청소년간 상호존중	-개인은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로운 존재임을 자각시킴 -타인도 사랑하며 수용할 수 있음을 인지시킴	4.4	4.2	4.2	만족	
		12	교사와 청소년간 성숙대화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습득 -교사와 청소년간 성숙한 대화기법을 습득	4.4	4.6	4.4	만족	
		순기능	13	학업 동기부여	-독립된 주체로서 학습에 노력을 기울이는 준비도를 점검 -독립된 주체로서 발의한 계획을 실천하는 전략을 제시	4.4	4.4	4.4	만족
			14	협력학습 하기	-또래와의 놀이추구 외 학습활동의 의미를 자각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협동학습 경험	4.4	4.6	4.6	만족
	종결 단계	15	헤어짐과 도약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소감문 작성 -발전된 자기 모습을 자각하고 학습전이가 발생하도록 유도	4.4	4.6	4.6	만족	

### 나. 실행단계(3~14회기)

실행단계에서는 도입단계에서 확인된 문화접근적 상담 프로그램을 그 내용에 따라 차례로 적용한다.

#### (1) 입시문화 순기능(3~6회기)

실행단계의 3~6회기는 입시문화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학습시간관리, 학습환경관리, 학습내용 잘 기억하기, 학업스트레스 극복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시간관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간을 잘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획득하도록 한다. 학습환경관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수업 관련 환경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학습내용 잘 기억하기는 중요한 개념이나 사실, 규칙 등의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거나 기억된 정보를 회상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한다. 학업스트레스 극복하기는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업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함과 아울러 대처 방법을 확인한다.

#### (2) 대안문화(7~10회기)

실행단계의 7~10회기는 대안문화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주의집중하기, 재미있게 공부하기, 미래를 생각하며 공부하기, 미래를 위한 학업태도 형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집중하기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주의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되, 기존의 주의집중력 향상이기 보다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재미있게 공부하기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배운 지식 혹은 학습한 내용을 조직화 및 정교화 하도록 하는 인지전략을 습득하도록 한다. 미래를 생각하며 공부하기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와 현재 학습활동과의 관련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함으로써 학업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미래를 위한 학업태도 형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현재 학업이 지루한 활

동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임을 강조하며 설정한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 (3) 양면가치문화(11~14회기)

실행단계의 11~14회기는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교사와 청소년간 상호존중, 교사와 청소년간 성숙한 대화, 학업동기부여, 협력학습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와 청소년간 상호존중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개인은 소중한 존재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로운 존재임을 깨닫도록 격려한다. 동시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하며 수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격려한다. 교사와 청소년간 성숙한 대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 및 타인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관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여, 사회적인 존재로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와 아울러 성숙한 대화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학습동기부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독립된 주체로서 학습에 노력을 기울이는 준비도를 점검하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협력학습하기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래와의 놀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들과 함께 하는 학습 활동과 시간의 효과적 측면을 이해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다. 종결단계(15회기)

종결단계는 실행단계에서 전개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내용을 종결하고, 추후 상담 프로그램 적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체 진행을 마무리한다.

이상으로 구안된 청소년의 학업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은 전문가 5인(상담학과 교수 2인,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등교사 1인, 시단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임연구원 2인)을 통해 평가하였고(매우 동의한다 5, 동의한다 4, 보통이다 3, 동의하지 않는다 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평가의 기준은 문화접근적 상담

프로그램의 적합성, 현실성, 유용성을 토대로 검증받았다. 이에 85% 합의를 본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1차 수정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은 예비 표본집단(시단위로 운영되는 ○○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의뢰된 고등학교 1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예비 적용에 있어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만족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은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입시문화의 ‘학습내용 잘 기억하기’, 대안문화의 ‘재미있게 공부하기’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을 요구하였다. 이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함과 아울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최종적인 매뉴얼을 확정하였다. 최종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목표 및 세부활동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U시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기관에 청소년상담을 의뢰한 고등학교 1학년 중 학교생활만족도(중), 사회경제적지위(중), 거주지(도시) 등을 고려하여 실험집단에 20명(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통제집단에 20명(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을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실험집단 20명에게는 입시문화, 대안문화,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으로 구안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내용이 제공되었고,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 실시 동안 통제집단 20명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월 중순에 사전검사(삶의 양식: 입시문화, 대안문화, 양면가치문화)를 실시하였고, 각 영역별 상담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3월 중순에 사전검사(학교생활적응)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6월 말에 사후검사를,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 지연검사를 실시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양식,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였다.

##### 가. 삶의 양식

청소년의 ‘삶의 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미(2007)가 개발한 청소년의 ‘삶의 양식’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삶의 양식’의 하위척도는 공부를 위한 자유포기, 경쟁자로서 교우, 시험위주의 공부 등을 측정하는 입시문화 14문항(.86), 연예인 선호활동, 학교교칙의 파괴, 동반자로서 친구, 학업이외의 놀이추구 등을 측정하는 대안문화 33문항(.77), 재미있는 참여수업,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학업수행,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공부하기 등을 측정하는 양면가치문화 13문항(.82)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성미(2007)의 ‘삶의 양식’ 척도는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시문화의 순기능, 대안문화의 순기능,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청소년의 ‘삶의 양식’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alpha$  계수는 입시문화 .85, 대안문화 .77, 양면문화 .80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용래(1993)가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교교사적응 7문항(.81), 학교수업적응 4문항(.81), 학교친구적응 4문항(.70)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alpha$ 계수는 학교교사적응 .80, 학교수업적응 .85, 학교친구적응 .72로 각각 나타났다.

### IV. 연구 결과

#### 1.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별 효과 검증

가. 입시문화 순기능

입시문화 순기능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시문화 순기능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다. 입시문화 순기능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입시문화의 순기능에 대한 공변량 분석

집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교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20	23.45(5.15)	32.60(6.15)	31.49(.94)
통제	20	20.40(5.60)	20.95(4.58)	22.05(.94)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사전검사 집단	576.54	1	576.54	
집단	822.38	1	822.38	48.36**
오차	629.20	37	17.00	

\*  $p<.05$ , \*\*  $p<.0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보면, 입시문화 순기능( $F=48.36$ ,  $p<.01$ )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32.60)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20.9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시문화의 순기능적 접근의 상담 내용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 대안문화 순기능

대안문화 순기능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안문화 순기능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다. 대안문화 순기능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안문화 순기능( $F=35.97$ ,  $p<.01$ )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75.80)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60.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안문화의 순기능적 접근의 상담 내용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3> 대안문화의 순기능에 대한 공변량 분석

집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교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20	66.80(13.71)	75.80(13.57)	72.92(1.11)
통제	20	60.30(7.10)	60.40(6.97)	63.27(1.11)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사전검사 집단	3552.18	1	3552.18	
집단	851.43	1	851.43	35.97**
오차	875.81	37	23.67	

\*  $p<.05$ , \*\*  $p<.01$

다. 양면가치문화 순기능

양면가치문화 순기능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면가치문화 순기능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하

였다. 양면가치문화 순기능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에 대한 공변량 분석

집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교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20	31.00(4.50)	34.70(6.01)	33.91(.78)
통제	20	29.25(5.73)	30.05(5.50)	30.83(.78)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사전검사	819.83	1	819.83	
집단	91.76	1	91.76	7.65**
오차	443.31	37	11.98	

\* p<.05, \*\* p<.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보면, 양면가치문화 순기능(F=7.65), p<.0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34.70)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30.0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적 접근의 상담 내용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2.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 검증

### 가. 학교생활적응의 공변량 분석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통제집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비해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보면, 학교생활적응(F=44.68, p<.0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32.10)가 통제

집단의 사후검사 점수(22.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변량 분석

집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교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20	24.25(3.94)	32.10(6.31)	32.05(1.01)
통제	20	24.10(3.74)	22.45(3.05)	22.49(1.01)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사전검사	177.37	1	177.37	
집단	914.65	1	914.65	44.68**
오차	757.37	37	20.47	

\* p<.05, \*\* p<.01

### 나. 실험집단의 검사시기별 효과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사전, 사후 및 지연검사 점수간의 차이를 반복측정식 일원변량분석 및 개별비교 검증(Schéffe)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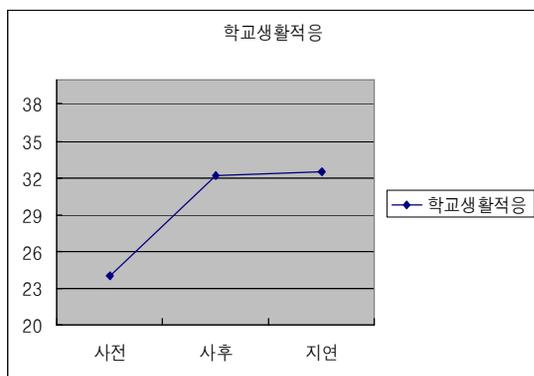
<표 6> 실험집단(20명)의 학교생활적응 검사시기별 차이검증 및 개별비교

	시간	M	SD	F
학	사전	24.00	3.88	
	사후	32.15	6.48	32.01**
	지연	32.84	5.31	
교 생 활 적 응	사전사후(I)	사전사후(J)	평균차(I-J)	표준오차
	사전	사후	-8.15**	1.33
		지연	-8.84**	1.14
	사후	사전	8.15**	1.33
		지연	-.68	1.20
	지연	사전	8.84**	1.14
	사후	.68	1.20	

\* p<.05, \*\* p<.01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생활적응의 검사 시기에 따른 반복측정식 일원변량분석의 결과, 검사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F=32.01, p<.01$ ). 이러한 결과는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사전, 사후, 지연검사 평균값의 차에 대한 개별비교 검증(Schéffe)을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간, 사전점수와 지연점수간에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사전<사후, 사전<지연), 사후점수와 지연점수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의 향상을 의미하며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전-사후-지연검사 평균 변화 패턴

## 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제 하위문화인 입시문화, 대안문화,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의 재해석을 통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생활적응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차례로 논의를 전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회기 진행별 그 내용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시문화 순기능, 대안문화 순기능, 양면가치문화 순기능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평균 차를 검증한 결과, 입시문화 순기능, 대안문화 순기

능, 양면가치문화 순기능 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제 하위문화 속에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변인으로써 입시문화, 대안문화, 양면가치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였다는 것에 대한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국내의 청소년 성장 관련 프로그램의 한계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삶에 깊숙이 닿아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일부 연구들(김혜운, 1996; 최소영, 1999; Okula, 1999)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담 체계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서의 적절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둘째,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의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연검사 점수를 검사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지연검사 점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의 증진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접근적 상담이 청소년의 학업능력 향상,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하는 여러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정준교, 2001; Arriaza, 2004). 이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 방식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증진에 매우 유의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효과가 일회적

인 것이 아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 전략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별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관점의 학교생활적응에 두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업문제, 성격 및 정신건강의 문제 각각에 대해서도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 전략이 효과적인지는 경험적으로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은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병행한 방식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효과 분석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경험적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다만 문화접근적 상담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각각의 효과를 검토하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고기홍(2003). 학업중단 청소년문제와 상담적 개입 방안,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4, 117~136.

곽금주·김의철·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11~121.

권이중(1996). 청소년과 문화, 한국교육학연구, 1(1), 97~111.

김민(2000). 청소년복지실현을 위한 학교문화의 과제, 충북교육학연구, 3(1), 89~112.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준기(2000). 학교조직문화의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 1~36.

김혜은(1996). 청소년문제와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의 문화적 특수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50~67.

도종수(2003). 정보화시대의 청소년문화 실태와 발전방향, 지성과 창조, 6, 167~189.

류경희(2003).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및 상담서비스 요구도, 창원대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7, 1~18.

박성미(2007). 청소년의 '삶의 양식'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교육, 16(4), 5~20.

박성희(1992). 청소년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0, 53~76.

박진규(2000). 청소년 집단 따돌림(왕따)현상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일 고찰, 청소년학연구, 7(2), 39~71.

박진규(2003). 청소년문화, 서울: 학지사.

변미희(2002). 아동, 청소년상담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4(2), 51~65.

은지용(2002). 청소년문화 연구의 대안적 접근, 시민교육연구, 34(2), 149~176.

이건만(1999). 학교교육과 청소년 저항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KRF 연구결과논문.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임상록(2002).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현상적 특성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7, 63~80.

장원규(2004). 초등학생의 학습문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영애·김진화(2001). 청소년의 열기문화와 교육적 함의, 창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8, 143~156.

정유성(1999). 청소년문화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21, 143~170.

정준교(2000). 학교문화유형과 학생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1(1), 143~182.

정준교(2001). 학교문화유형, 학교조직몰입 및 학교중퇴 의도의 관계, 연세경영연구, 38(1), 133~168.

조용환(2000). '교실붕괴'의 교육인류학적분석: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3(2), 43~66.

- 최소영(1996).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문화의 이중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소영(1999).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4), 870~879.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복지론, 서울: 교육과학사.
- 황기우(2002). 교사문화의 생성과정 분석, 교육문제연구, 17, 213~228.
- Arriaza, G.(2004). Changing schools for good: A study of school culture and systems, Education and Society, 22(2), 5~22.
- Bulach, C. R.(2001). Reshaping school culture to empower its partners, The Education Digest, 67(1), 8~11.
- Clement, C.(2003). Connecting school principals school culture and school improvement, Leading and Managing, 9(2), 112~116.
- Dewit, D. J.(2000). The effect of school culture on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self-esteem, attachment to learning, and peer approval of deviance as mediating mechanism,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6(1), 15~38.
- Draper, I.(2001). A cultural revolution performance management with a look at the possible impact it will have on school culture, Managing Schools Today, 10(5), 33~35.
- Hobby, R(2004). Change your school culture, Managing Schools Today, 13(6), 24~27.
- Keum, M. J., Kim, T. K., Kang, J. K., An, H. J.(2000). The multiprofessional team counseling system for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169~184.
- Littrell, J. M.(2001). Transforming the school culture: A model based on an exemplary counsel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5), 310~319.
- Maslowski, R.(2006). A review of inventories for diagnosing school cultur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4(1), 6~35.
- Okula, S.(1999). Creating a positive school culture: Strategies that work, Business Education Forum, 54(2), 7~13.
- Patterson, W.(2000). Grounding school culture to enable real change, The Education Digest, 65(9), 4~8.
- Sellman, E.(2002). Peer mediation, school culture and substantiality, Pastoral Care in Education, 20(2), 7~11.
- 
- 논문접수일 : 2009년 01월 05일
  - 논문심사일 : 1차 - 2009년 02월 24일  
2차 - 2009년 03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04월 18일